

UAE 원전 투자 사업 계약 체결

한전, 60년간 총매출 54조원 규모



조환익 한전 사장과 무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관 겸 ENEC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0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UAE 원전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UAE 원전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UAE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한국-UAE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양국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한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함께 어울려 빛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UAE 원전 운영 사업은 한전이 2009년 12월에 수주하여 건설 중에 있는 5600MW UAE 바라카 원전을 향후 60년간 운영하는 것이며, 한전은 약 494억불(한화 54조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규모 54조원은 UAE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금액인 약 186억불(한화 21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자동차 228만대, 휴대폰 약 5200만대의 수출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AE 원전 사업은 한전이 2009년 12월에 수주한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5,600MW)를 UAE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으로서 한전이 주계약자로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영 지원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공정을 적기에 달성하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매년 한 개 호기씩 2020년까지 4개 호기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투자 사업 성공을 통해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Total 원전 사업 모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세계

원전 시장에서 더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원자력 이용 시설 해체 상황 확인 · 점검 고시 및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0월 14일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 · 점검 및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 · 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안(고시))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5.7.21.시행)에서 위임한 해체 상황 확인 · 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해체 상황에 대한 확인 · 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량 기준 및 조사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희, 입법(행정)예고,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시행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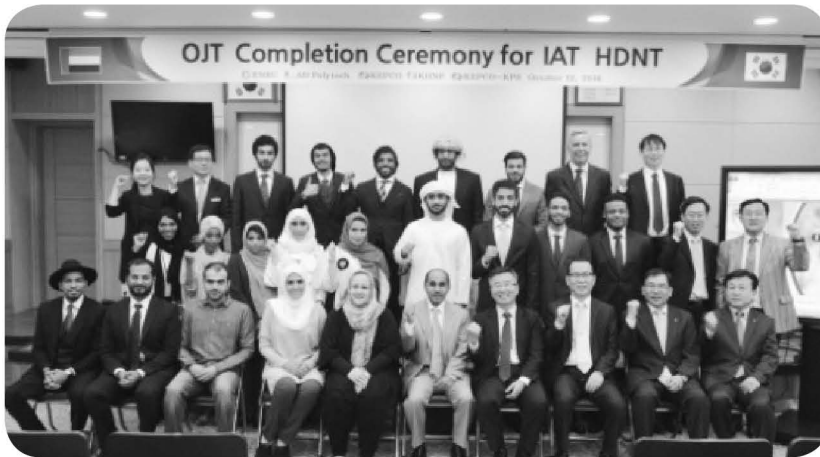
UAE 원자력 전문학사 교육사업 완료 한국수력원자력, UAE 학생 위탁 교육 과정 통해 총118명 배출

한국수력원자력과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 및 나와에너지(Nawah Energy, UAE원전 운영사)는 10월 12일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전문학사 교육사업 완료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 16명과 나와에너지 라시드 알누아이미 인사담당 최고책임자, 에미리트원자력공사 모하메드 알카두리 한국지사장 및 한수원 UAE사업센터 남요식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생 16명은 3년 12학기 과정의 원자력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118명의 원자력 전문학사가 배출됐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본 교육 사업은 대한민국과 UAE 정부가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른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외 에미리트원자력공사, 나와에너지, 왕립기술고등학교,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했다.

UAE 원자력발전 전문학사 과정은 3년 12학기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7학기는 UAE 왕립기술고 자매학교인 아부다비 폴리텍(AD Polytech)에서 이론교육, 나머지 5학기는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현장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을 마친 교



UAE 원자력 전문학사 교육 가정을 마친 교육생과 한수원의 교육 사업 관계자

육생에게 아부다비 폴리텍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한수원은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한다.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향후 나와에너지에 채용돼 UAE 바라카 원전 준공 후 발전, 방사선 안전, 화학 및 정비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People



성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취임

성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10월 4일 취임했다. 성 신임 원장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원자력공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KINS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가동원전 규제단장, 심사단장을 역임해 원전 규제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부터는 KINS 부원장을 맡아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규제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획조정위원회 등 기관 경영에도 참여해 왔으며, 2015년부터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규제위원회(CNRA)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

인사동정

산업통상자원부

2016-10-10

△ 에너지자원실장 정승일 △ 무역투자실장 채희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10-06

△ 부원장 김인구 △ 원자력심사단장 황태석 △ 안전평가실장 양채용

원산소식

지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강연

제187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제187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9월 29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1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현철 박사(전 지진연구센터장)는 ‘한반도의 지진학적 환경과 경주 지진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현철 박사는 강연에서 세계 지진 분포도와 한반도 주변의 응력 분포도를 설명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지각 이동,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하여 폭넓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현철 박사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파는 저층건물에 피해를 보이는 게 특징이며,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 역시 고주파의 영향으로 저층 피해가 많았던 사례”라고 설명하고 “국내 원전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돼 있는 구조물이지만 발생하는 지진파 형태에 따른 내진 보강 설계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지진학적 환경과 경주 지진의 의미’로 강연을 하고 있는 지현철 박사.